

주민자치회, 온라인 전환에 위축... 공공지원 등 강화 필요

서울연구원, 자치위원 1144명 설문
비대면 전환 후 만족도 0.2점 ↓
유대감 형성 만족도 0.17점 줄어
“비대면, 자발적 참여 등 힘들어
활동 성취감·동기부여 줄어”



도봉구 방학3동 주민총회 투표 모습.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됨에 따라 시민이 정책 수립과 실행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활동도 상당수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비대면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대면 때보다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공개된 '사회적 거리두에 따른 비대면 주민 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코로나 발생 이후 2년간 이뤄진 비대면 주민참여의 실태와 참여자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작년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민자치위원 1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비대면 주민자

치 활동을 위해 이용한 적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는 SNS(80.9%), 온라인 투표(65.5%), 동영상 스트리밍(64.4%), 화상회의(51.4%) 순이었다.
보고서는 “온라인 공론장(18.4%)과 온라인 협업툴(14.4%)은 다른 서비스에 비해 이용 경험이 뚜렷하게 적고 특정 행정동에 집중됐다”며 “이는 비대면 주민자치회 활동이 자료 공유와 단답형 소통(SNS), 다수결 방식의 합의 형성(온라인 투표), 시청형 참여(동영상 스트리밍) 등 비교적 단순한 참여와 의사결정 위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성향점수매칭 분석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주민자치 활동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자발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년 3.97점에서 2021년 3.84점으로 0.13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유대감 형성 만족도는 3.91점에서 3.74점으로 0.17점 줄었고, 전반적 만족도는 3.88점에서 3.68점으로 0.2점 내려앉았다. 재참여 의사는 2019년 2.6점에서 작년 2.45점으로 0.15점 떨어졌다.
보고서는 “성향점수분석으로 2019년, 2021년 두 조사의 응답자를 최대한

통제한 비교에서 자발성, 유대감 형성, 전반적인 만족도, 재참여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은 비대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대면 활동에 비해 덜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비대면 참여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 비율은 35.9%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32.4%)는 답변을 앞섰다.
연구진은 “비대면 방식은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소통이 대면 방식보다 힘들었고, 이로 인해 활동의 성취감이

나 동기 부여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민 참여 활동 제한을 유지하게 되면 겉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참여의 질과 만족도가 낮아져 참여자들이 활동을 중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참여를 활성화하더라도 공간적 스케일, 공론장의 성격, 민주적 의사결정 행위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면 방식이 효과적인 유대감 형성, 속의는 인원수, 장소, 시간 등을 축소하거나 세분화해 가급적 대면 활동을 보장하고, 비대면 참여를 돕는 공공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연구진은 “주민자치위원은 비대면 참여 교육과 지원 강화, 통합 온라인 서비스 개발, 공공공간과 장비 제공 등 비대면 참여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제공을 원하고 있다”며 “비대면 참여 지원 인프라는 이용자 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일회용품 최소화’ 제로마켓 활성화 지원

서울시, 올해 총 95곳 모집·지원
최대 800만원... 이달 말까지 접수
서울시는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로마켓은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한 상품을 판매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해 필요한 만큼 제품의 내용물을 소분·리필해 소비할 수 있는 매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작은 규모의 1인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다양한 판매제품 확보, 소비자 홍보 등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는 올해 제로마켓 95곳을 모집해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제로마켓 활성화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생산·소비단계를에서부터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지원 대상은 ▲소분·리필제품을 판매하는 전문 제로웨이스트 매장 ▲포장재를 줄이는 꽃가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반찬가게 ▲기존 슈퍼마켓, 판매 매장 등에 소분·리필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는 사업자다. 시는 최소 200만원에

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자에는 보조금 외에도 제로마켓 사업 개설·운영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동구매, 홍보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모집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디자인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내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103곳의 위치와 판매 물품, 운영 시간 정보는 ‘스마트서움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관광 프로그램 ‘행주가 평화를 만나다’ 운영

고양시, 17일부터 매주 금·토·일 진행
“한강 하구 생태·역사·평화 체험해요”
고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국내 최장거리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에 포함된 DMZ 평화의길 쉽터 운영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지정사업에 선정되어 ‘행주가 평화를 만나다’ 관광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행주가 평화를 만나다’는 6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금, 토, 일 총 48회 진행된다. 생태전문가와 동행하면서 고양시 한강하구의 생태·역사·평화

를 체험하고 새롭게 조성된 고양한강평화공원에서 라이더가 태워주는 3인용 평화자전거를 타며 한강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중 이용할 수 있는 ‘한강방문자센터’는 지난 3월 행주군막사를 리모델링해 시민 공간으로 개방한 장소로 한강 하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 장소와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센터에서 행주 일대 한강변을 엿볼 수 있는 디오라마도 만나볼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일일 선착순 10명까지로 인터파크 티켓업을 통해 6월 13일 월요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한양도성 각자성석 297개 관리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각자성석을 보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13일 밝혔다.
각자성석은 조선 시대에 한양도성을 축조할 당시 공사 담당자의 이름, 직책, 담당 지역 등을 새긴 성돌을 의미한다. 세종실록에는 한양도성의 성벽이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 구간을 축성한 지역 담당자에게 성벽을 다시 쌓게 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한양도성의

각자성석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까지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상태에 맞는 보존 처리를 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까지 발견된 297개 각자성석 중 105개(35.3%)에 대한 보존 처리를 완료했다. 오는 2025년까지 나머지 192개의 보존 처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3D 정밀스캔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리·활용도 추진한다. 현재 시는 탁본에 의한 오염 등의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비접촉식 ‘디지털 탁본’으로 각자성석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 글자를 판독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3D 정밀스캔 자료를 활용해 제작한 각자성석 모형 안내판은 낙산구간, 남산구간, 인왕산구간 등에 9개가 설치돼 있다. 한양도성 순성객들은 각자성석에 새겨진 석수들의 글자체를 비교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앞으로도 각자성석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한양도성의 이야기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5
6월 14일 (화)
음력 : 5월 16일
수도권 날씨
18~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5/26, 동두천 15/27, 가평 15/24, 파주 15/26, 서울 18/29, 양평 16/26, 수원 19/28, 용인 19/28, 평택 17/27, 백령도 16/23, 인천 18/28, 인천 15/26, 동두천 15/27, 가평 15/24, 파주 15/26, 서울 18/29, 양평 16/26, 수원 19/28, 용인 19/28, 평택 17/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쌓여가는 우크라이나 곡물...“육로로 수출길 모색” /사진 뉴스스
▲“러, 전쟁 100일간 에너지수출로 125조원 벌어들여...EU가 61% 구매”

▲美 “카슈끄지 피살, 추궁 않겠다”... 고유가에 사우디와 타협
▲美 상원, 총기규제안 일부 합의



▲에어백·ABS도 없는 러시아 신차... 서방 제재 영향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차이나 리스크 각인시키며 완전 상장폐지 /사진 뉴스스